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⑧

# 범부의 마음이 성인의 마음 오음경계가 바로 불사의 경계

復次 第二明歷緣對境修止觀者 端身常坐 乃爲入道之勝要 而有累之身 必涉事緣 若隨緣對境而不修習止觀 是則修心有間絶 結業觸處而起 豈得疾與佛法相應 若於一切時中常修定慧方便 當知是人必能通達一切佛法 云何名歷緣修止觀 所言緣者 謂六種緣 一行 二住 三坐 四臥 五作作 六言語 云何名對境修止觀 所言境者謂六塵境 一眼對色 二耳對聲 三鼻對香 四舌對味 五身對觸 六意對法 行者約此十二事中修止觀故 名爲歷緣對境修止觀也

앞에서 정수행을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앉아서 하는 수행이었고 두 번째는 인연을 따르면서 그 경계와 마주하고 수행하는 것이었다.

먼저 앉아서 수행하는 것은 거친 마음을 대치하여 지관을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정혜를 평등하게 수행하는 것까지 다섯 종류로 분류하였다.

이 다섯 가지 수행 가운데 각각 정수행과 조수행으로서 닦는 지관은 동일하지 않았다. 지를 수행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매달아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인데, 즉 마음을 제어하는 체진지(體眞止)이다.

관 수행으로는 부정관 · 자비관 · 수식관 · 개분별관 등 보조수행이 있다.

정식으로 관 수행하는 것은 삼지삼관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두 번째로 외부조건을 따르면서 그 경계를 마주하고 닦는 지관에 대해 말하겠다. 그러나 그 이치를 밝히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대의를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수행마다 곳곳에서 부처님과 서로 호응하게 된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목전에 나타나 있는 갖가지 경계가 자기 마음속에서 나타난 견분(見分)과 상분(相分)이라는 점이다.

마음은 인식의 주체로서 견분이라고 하고, 인식대상경계는 상분이라고 한다. 인식주체로서의 견분은 인식대상으로서의 상분을 인식한다. 여기에서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대상경계로서 물질적인 자연현상계를 말한다.

견분과 상분은 본래 실체가 없고 모두가 자증분(自證分)으로 자체를 삼고 있다. 자증분은 심왕을 말하는 것이고, 견분은 심왕을 따라서 일어나는 심소를 의미한다.

심왕 자증분에서 동시에 일어난 견분과 상분은 그 당체가 바로 공가중이어서 불가사의한 원융삼제의 이치인 것이다.

이를 따라 관찰해보면 두두물물 모두가 오묘한 원융삼제이다. 그 때문에 "산하 대지가 법왕신을 전체로 드러낸 것이며, 나는 새, 달리는 짐승, 물고기, 갑각류까지도 모든 삼매를 보편하게 드러낸다" 고 하였다. 또 "한줄기 풀로 장육금신을 만들고 푸른 대나무와 누런 국화꽃 등이 반야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

능엄경에서는 "육근 · 육진 · 육식이 낱낱이 여래장 묘진여성 아님이 없는 청정본연으로서 법계에 두루한다"라고 하였다.

## 현실생활이 지관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수행이 현실생활을 방해하지 않아

그렇다면 범부의 마음이 성인의 마음이며, 오음경계가 바로 불사의 경계이다. 이를 두고 법화경에서는 "법이 진여법 위치에 안주해서 생멸하는 세간의 모습이 그대로 상주진여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치의 측면에서는 이와 같다고 해도 속제 현실의 측면에선 반드시 점차 수행을 거쳐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인연의 경계를 마주하면서 낱낱이 실제와 같이 닦아야만 바닷물 속에 들어가 모래 수를 세고 끝없이 질펀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두 번째로 인연을 따라서 경계와 마주한 상태로 지관을 닦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연(緣)은 현실 생활 속의 인연이고 경계는 육진경계를 말한다.

항상 몸을 단정히 하고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도로 깨달아 들어가는 가장 뛰어난 요점이다.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은 육도범부만이 처음 공부할 때 몸을 단정히 하고 고요히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제불도 최초에 수행할 땐 역시 단정한 몸으로 올바르게 앉아서 도를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몸이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의 인식대상으로 떠오른 경계도 청정하여 마음이 공하고 경계도 고요하여야만 생각 생각 신속한 깨달음의 세계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도로 깨달아 들어가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하였다.

"번뇌에 쌓여있는 몸은 반드시 현실 생활 속에서 일의 인연을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항상 단정한 몸으로 좌선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허깨비 몸을 가지고 세간에 살아가면서 종일토록 의식주 등에 핍박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세간 육진경계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항상 앉아서 도를 닦고자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인연을 따라 그 경계를 마주하면서 지관을 닦는다면 부질없는 인생을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수행과 세간의 일은 상대적인 두 쪽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관을 수행하면 세간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세간의 일에 몰두하면 또 지관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닦는데 있어서 간격과 단락이 있게 되어 부딪치는 일마다 업을 짓게 된다.

청정한 세계에 높이 오르고 신속하게 불퇴전의 경지를 증득하고자 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일체 시간에서 일체 세간의 인연을 따르고 일체 경계를 마주하는 가운데 수시로 간단없이 지관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항상 마음을 정과 혜에 안정되게 하여 이와 같은 방편으로서 어떤 경계, 어떤 인연을 마주하는 것을 따로 논할 것 없이 자기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야만 된다.

경계와 인연은 어느 곳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떠나가는가를 추구하여 시시로 관찰하고 끝까지 추구해보면 모든 것은 원래 실체라고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세간에 있어도 육진에 오염되지 않고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세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속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세간의 일이 불법이고, 육진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 불사가 된다. 이는 진제와 속제가 하나의 이치로 융합 소통하는 삼매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종일 밥을 먹는다 해도 쌀 한 톨을 씹는 일이 없고 종일 옷을 입는다 해도 실오라기 하나 걸친 일이 없이 오직 도만을 구하는데, 이것도 현실 속에서의 지관수행일 뿐이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종일토록 지관수행을 통해서 일심으로 도를 구한다 해도 세간의 일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 무애자재한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를 두고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역시 물일뿐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삼라만상이 역력하게 목전에 나타난다 해도 마음속엔 끝내 한 물건도 없어 마음을 일으킨다 해도 따로 안주하는 집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인연을 따라 경계를 마주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지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모든 법문을 증득하려 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 삼성(三性)

(2) 의타기성(依他起性)

다음으로 '의타기성'에 대해 말해 본다면 '타(他)'는 한마디로 인연(因緣)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왕과 심소편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일체의 심왕과 심소법은 바로 한량없는 견분과 상분이 하나로 합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량없는 견분과 상분은 뭇 인연을 의지해야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상호의존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성질이라는 의미에서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서는 "의타기는 분별의 인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분별이라는 단어는 '식'의 다른 명칭일 뿐입니다. 일체의 심식은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하여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견분심법(見分心法)은 의타기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분색법은 견분을 떠나서 따로 독자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견분색법도 역시 의타기성에 동시적으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인연[衆緣]'이라는 것은 심식의 활동을 일으키는 필수적 조건 사연(四緣)을 말합니다.

(3) 원성실성(圓成實性)

'원성실성'은 아법이공(我法二空)의 이치를 통해서 나타난 일체법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실제성품, 즉 우주만유의 실체적인 이치입니다. 이것을 진여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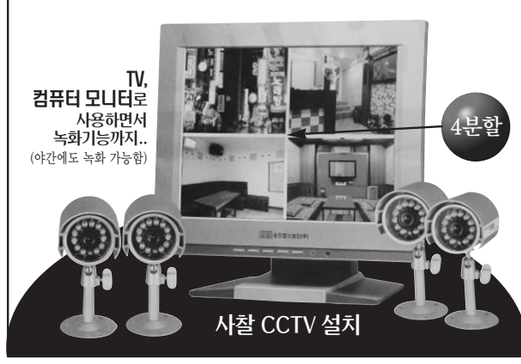
인법이집(人法二執) 때문에 그동안 진여의 이치가 나타나지 못했으나 이공관(二空觀)을 통해서 변계소집성을 버렸기 때문에 오온개공의 도리가 환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만'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두루 보편하여 충만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며, '성취'는 진리의 자체는 항구하게 상존하면서 생멸로 천류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법의 실제성품'이라 하는 것은 이 진리야말로 만법에 보편한 실체이기 때문인데, 이는 외도들이 집착하는 신아(神我)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착은 잘못된 오해의 허상일 뿐, 그것이 제법을 일으키는 진실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張如舟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오시는 길 ▷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